

### ■ 말레이시아 모바일 다운로드 시장 급성장

-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시장은 2005 년부터 3 세대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고 단말기가 고급화되면서 향후 몇 년간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Maxis, Celcom, DiGi 3 개 이동통신사가 있으며, 이동전화 이용자수는 11 백만명으로 약 44%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Frost & Sullivan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올해 모바일 다운로드 시장은 US\$41.2 백만불 규모로 내년에는 배 이상 늘어난 US\$91.1 백만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IDC Malaysia 에 의하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SMS 제외) 가입자수는 2003 년 825,000 명으로 올해 말까지 1.5 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모바일 다운로드 중 현재까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전화벨 다운로드이며, 배경화면, 스크린세이버, 아이콘 등도 주요 매출 요소임. 다중화음 벨소리, 목소리 전화벨의 인기는 물론 최근 도입한 칼라링백톤 서비스의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인데, 2003 년 시장규모는 US\$21.2 백만불로 2009 년까지 연평균 21.5 퍼센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모바일 TV 는 또 다른 고속성장분야로 DiGi 사는 올해 5 월부터 고속데이터서비스가 가능한 EDGE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바일 TV 시청을 정액제로 제공하면서 가입자수를 크게 늘리고 있음. Maxis 와 Celcom 도 2005 년부터 3 세대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모바일 TV 및 뮤직 비디오 분야는 2009 년까지 연평균 78.4 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정보시스템, 판매자동화 등의 비즈니스 & 기업 솔루션은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중요함. Maxis 사의 콘텐츠 개발부장 말렉 알리씨는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장에서도 가장 앞선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성공한 콘텐츠와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Maxis 는 한국의 컴퓨터쓰, 사이버힐스 사 등과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였고 DiGi 사는 삼성전자와 컬러링백톤 서비스, 넥스트드림과 비디오스트리밍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콘텐츠 업체의 진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말레이시아도 한류 열풍의 예외가 아니어서 매주 한국 드라마가 TV 에 방영되고 있으며, 영화, 게임 등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음. 일부 한국 업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모바일 시장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여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매년 2 배씩 시장이 커지는 급성장 시장이고,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문의처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빈준화 binjh@kotrakl.com.my)